

국가통계의 발전방향

2005년 12월

작성자 : 통계개발팀 최 정 수

Tel. (042)481-2573

e-mail : jschoi@nso.go.kr

主 要 內 容

- 본 글의 주요 목적은 국가정책의 방향, 새로운 경제·사회의 발전, 글로벌 정보화 사회의 도래, 조사환경의 변화에 따른 통계수요의 변화와 도전을 국·내외의 국가통계 중장기 발전계획의 시대적 비교를 통하여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국가통계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살펴봄에 있음
- 이를 위하여 우선 국외의 비교 대상국가로 우리나라 통계작성 시스템과 유사한 일본의 국가통계 중장기 발전방향과 중장기 국가통계프로그램이 구체적이며 체계화된 영국과 호주의 국가통계발전계획을 비교한 후 우리나라의 국가통계발전계획을 시대적 구분에 따라 비교 분석
- 국가통계 중장기발전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1) 부처별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2) 정책결정권자 및 기관의 인식의 전환, 3) 정책평가에 통계를 활용하는 방안, 4) 개선 및 개발과제와 연계된 중장기 재정수요 수립 및 반영이 필요

※ 본 글은 필자가 국가통계인프라 강화추진단의 국가통계 중장기발전계획(통계의 개선·개발) 아젠다 작업에 참여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한 글이며, 전적으로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둔다.

I. 머리말

최근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변화와 글로벌화에 따라 다양한 국가정책수립에 부응하는 통계, 국정운영과제의 평가¹⁾를 위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 등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와 국민들은 정부정책의 평가 및 삶의 질과 관련된 통계에 대한 욕구로 통계수요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통계생산과 공급은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국가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통계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계획에 따른 추진과제가 어떻게 실행되어지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본 글의 주요 목적은 국가정책의 방향, 새로운 경제·사회의 발전, 글로벌 정보화 사회의 도래, 조사환경의 변화에 따른 통계수요의 변화와 도전을 국·내외의 국가통계 중장기 발전계획의 시대적 비교를 통하여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국가통계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살펴봄에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외의 비교 대상국가로 우리나라 통계작성 시스템과 유사한 일본의 국가통계 중장기 발전방향과 중장기 국가통계프로그램이 구체적이며 체계화된 영국과 호주의 국가통계발전계획을 비교한다.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70년대, 90년대 및 2000년대의 국가통계발전계획을 시대적 구분에 따라 비교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중장기계획의 비교를 통하여 얻어진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언급한다.

II. 국가통계의 정의 및 특징

현재까지 국가통계(national statistics)에 대한 개념이 국제적으로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UN, OECD 등 국제기구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가통계를 공식통계(official statistics) 혹은 정부통계(government statistics)라는 명칭으로 사용한다.

1) 통계작성에서 통계작성의 업무성, 신뢰성, 정확성, 투명성, 접근성, 개방성, 통계작성을 주요 지표로 활용하여 있다(2005년 국가통계발전계획, 국무조정실).

UN(1994)은 공식통계를 “정부 내 그리고 공동체에서 토론, 의사결정 및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작성되는 통계(official statistics are collected by government to inform debate, decision making and research within government and by the wider community)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2003)은 통계의 의미를 “인구, 사회, 경제 등에 관하여 그 집단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시책의 기획·입안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statistics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planning and designing administrative policies by accurately measuring the state of a group in the aspects of the population, society, and the economy)”하는 것에 두고 있다.

호주통계청(2004)은 통계청(ABS)의 임무(mission)를 “국가통계수요에 적합한 고품질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와 공동체에 대한 의사결정, 연구 및 토론을 지원하고 장려한다(the mission of ABS is to assist and encourage informed decision-making, research and discussion within governments and the community, by providing a high quality, objective and responsive national statistical service)라고 언급하고 있다.

김민경(2001)은 국가통계를 “국가가 국민생활과 관련된 인구, 사회, 경제 등 각종 현상을 파악하여 작성한 통계”로 규정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김민경(2001)의 정의에 동의하며, 다만 추진주체(기관)를 덧붙여 국가통계의 정의를 “국가가 국민생활과 관련된 인구, 사회, 경제 및 환경 등에 관한 각종 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에 의해 작성한 통계”로 규정한다. 여기에서 정부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산하기관과 연구기관을 포함한 범위를 의미 한다.

이미 국가통계의 정의 및 의의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통계는 속성상 생산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주된 이유는 통계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공공재(public goods)는 사적재(private goods)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사적재가 그 소비를 위해서 경쟁을 해야 하고, 일단 한 소비자가 소비를 하면 다른 소비자는 소비로부터 배제되는데 반해, 공공재는 동일한 재화를 여러 소비자가 동시에 소비할 수 있는 비경합성(non-rivalry)과 또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로부터 배제하기가 어렵다는 배제불가능성(non-excludability)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나성린, 2001). 따라서 통계는 어떤 기관이 자신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생산하더라도 생산자 이외의 많은 사람들이 이를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효용은 매우 커지게 되는 소위 외부경제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통계는 대표적인 공공재라 할 수 있다.

반면 통계는 공공재 성격으로 수요공급구조에서는 시장의 실패를 가져온다. 이러한 주된 이유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모든 소비자가 공공재의 소비로부터 배제되지 않으므로 그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즉, 모든 소비자들이 무임승차자(free-rider)가 되려고 하기에 공공재가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적게 공급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공공재를 공급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자원조달방법이 문제가 된다. 이를 통계생산과 연계해 살펴보면, 개별 사업자로서는 통계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우므로 사적이윤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통계를 생산할 유인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여 국가기관에서 통계를 생산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통계가 갖는 중요한 속성인 공공재적 성격 이외에, 통계는 정보재의 속성을 지니는데 특징은 다음과 같다(이재형, 2004).

첫째, 정보는 생산에 있어 매몰비용(sunk cost)적 성격의 초기비용이 큰 대신 복제·유통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아 활용도가 높을수록 그 가치는 커진다.

둘째, 정보재는 그것을 직접 이용해보기 전에는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렵고 또 품질에 대한 가치평가가 주관적이며, 소유권이 불확실하므로 시장에서 적절히 거래되기 어렵다.

셋째,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의 신선도와 가치성(정확도)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통계의 품질은 그 정확성 및 신뢰성과 시의성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넷째, 정보는 생산 및 축적량이 많아질수록 그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 즉, 사회현상에 대한 다양한 통계가 공급될수록 이들 통계는 상호 연관되어 정보로서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게 된다.

다섯째, 정보가 갖는 이상과 같은 속성 때문에 정보는 사적재에서 공공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가질수 있는데 정보가 어떤 재화형태로 되는가는 국가의 제도에 의해 결정 된다.

정보재가 갖는 이러한 보편적인 속성을 감안한다면, 통계라는 정보재는 다음과 같은 수요공급구조를 갖는다. 첫째, 생산비측면에서 고정비용(fixed cost)이 매우 크며, 이러한 고정비용은 매몰비용(sunk cost)의 성격을 갖는다. 그 대신 가변비용(variable cost)은 낮다. 둘째, 국가통계의 경우 정부 독점적 공급재화이므로 생산량과 가격은 정부가 결정하게 된다. 셋째, 수요는 상당히 가변적이며, 공급자가 수요를 창출할 여지가 매우 크다.

통계생산의 효율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통계생산비용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통계생산비용에는 사업비, 경상예산과 통계생산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기관이나 조사대상자들의 시간, 인력과 정신적인 부담까지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통계생산비용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비용에 비해 매우 크며, 통계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이러한 비용구조를 감안하여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통계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통계생산비용이 정해져 있다고 가정할 때 그 편익이 가장 큰 방향으로 수요체계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Ⅲ. 국·내외의 국가통계 중장기발전계획 비교 분석

1. 통계환경의 변화

국가통계 생산은 그 대상과 방법 등에 있어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최근 세계가 국가와 국경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정보가 주요자원인 지식경제로의 이행이 중심이 된 글로벌 정보화 사회(global information society)로의 이행이 있다. 즉 글로벌사회는 지식이나 데이터의 전달체계가 고도화되고 모든 사람이 이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사회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가장 잘 전달하는 매개체가 통계정보이다.

최근 글로벌사회로 도래로 기업 활동이 생산, 판매, 서비스 및 금융측면에서 빈번하게 국경을 초월하게 되어 종래의 무역장벽을 초월하는 무역권을 새롭게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통계, 다국적 기업통계,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온실가스통계 등의 통계는 기존의 편제 및 추계방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UN, OECD 등 국제기구와 통계 선진국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세계화 현상을 포착하기 위한 새로운 통계 편제(개선 및 개발) 및 추계방법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포착하여 통계화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적으로는 1980년대 이후 개발 전략적인 경제성장 위주에서 성장과 복지의 조화,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함에 따라 통계수요도 경제통계 위주에서 사회통계와 지역통계로의 확충 등 보다 다양화 되었다. 특히 통계생산 환경이 2000년대에 들어 경제사회구조 및 국민의식의 두드러진 변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정책적

수요에 부응한 통계, 분야별 통계개발의 확대 등 통계수요층의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통계작성 및 공급환경도 정보기술(IT)의 발달로 인하여 크게 변화를 보이고 있다.

2. 주요 선진국의 중장기발전계획 비교

가. 영국의 국가통계발전계획

영국 국가통계 작성의 주요 목적은 경제사회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확하고 시의성 있으며 신뢰성 있는 통계를 제공함에 있다. 이에 따라 장기발전계획의 궁극적 목표도 국가통계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바탕으로 국가통계의 실제적인 완전성(integrity)과 국민들의 인식상의 완전성을 모두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동 계획에는 또한 국가통계의 확실한 품질보장과 통계의 축적·제공시 정치적 간섭배제 등 2가지 측면이 포함된다. 내용 구성을 보면, 크게 범부처적 협력과제(cross-cutting programme)와 12개 분야별 개선 및 개발과제 등 총 132건의 추진과제로 이루어졌다(표 1 참조). 또한 추진주체와 일정, 그리고 연도별 소요예산이 있어 과제를 추진하는데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명시하여 향후 과제 추진실태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과제 내용에서 관심을 끄는 과제는 범부처적 협력과제이다. 이 과제는 영국정부가 지자체와 협력하여 국가의 주요 현안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이다. 과제를 보면, 먼저 지역통계(neighbourhood statistics) 구축이다. 동 통계는 단순한 지역통계 DB구축 및 지표취합이 아니라 통계 GIS기법을 활용하여 지역통계를 생산하고 소지역(small area) 추정기법을 적용하여 지역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지표(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과제는 최근 세계적으로 경제성장과 환경, 그리고 사회가 조화를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분야별 지표를 선정하여 지표 Set을 구축하는 과제이다.

나. 호주의 장기발전계획

호주의 장기발전계획은 총 78건의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국과 같이 추진주체와 일정, 그리고 연도별 소요예산이 명시되어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으며 결과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할 수 있는 체계로 이루어졌다(표 1 참조). 호주의 발전계획에는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을 명확히 명시하였으

며, 과제를 영국과 같이 분야별로 개선 및 개발과제로 구분하였다. 특히 방법론 연구에 대한 과제가 포함되어 통계 연구기반조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일본 중장기 발전계획

일본의 국가통계 장기발전계획을 담은 '통계행정의 새로운 전개방향'에서는 사회경제변화에 부응한 통계의 정비, 통계조사의 효율적 실시와 기반정비, 조사결과의 이용확대, 국제협력의 추진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장기실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²⁾. 일본의 장기발전과제는 55건으로 관련 부처별로 추진될 예정이다(표 1 참조). 그러나 추진주체와 일정이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에 필요한 연도별 소요예산이 명시되지 않았다.

일본의 장기발전계획에서 관심을 끄는 과제는 정책평가에 통계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과제의 배경을 살펴보면, 2002년 4.1일에 '행정기관이 행한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행정기관은 그 소관 정책에 대해 적시에 정책효과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요성, 효율성 또는 유효성의 관점, 그 외 당해정책의 특성에 대응한 관점에 따라 자체평가를 하는 외에 평가결과를 당해정책에 적시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동법은 정책평가를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실시하기 위해 '정책효과는 정책의 특성에 대응한 합리적인 수법을 이용하고, 가능하면 정량적으로 파악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법이 시행된다면 정책평가에 기여함으로써 정책의 기초가 되는 통계조사내용의 내실화 등 통계조사의 활용을 도모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구체적 실현방안을 보면 각 부처는 직원에 대한 통계지식의 보급개발과 통계연수의 내실화를 도모하며 필요한 경우 통계조사의 개선을 도모해야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2) "통계행정의 새로운 전개방향(2003)과 '통계행정의 신중장기 구상(1995)'와의 차이는 2003년 보고서가 최근의 정보 기술이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경제센서스의 개발, 대규모 통계조사의 통합 등 검토, 온라인 조사의 확대, 행정통계의 적극 활용 등을 강조하고 있다.

<표 1> 영국, 호주, 일본의 중장기발전계획 추진 과제 비교

국 가	영국 (2002~05)	호주 (2004~07)	일본 (2003~)
과제수	132	78	55
분야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부처 협력 현안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통계 - 지속가능발전지표 - 국제협력과제 ○ 분야별 개선·개발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어업 - 산업, 자원 - 범죄 - 경제 - 교육 - 보건 - 환경 - 사회복지 - 교통, 관광 - 기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분야 개선·개발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계정, 국제계정, 국제무역, 재정계정, 공공계정 - 물가, 경제, 기업 - 농업, 광공업, 건설, 교통 - 서비스산업 - 관광, 환경 - 경제통계 기준 ○ 인구 분야 개선·개발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센서스 - 노동, 복지 - 사회, 공동체 - 교육, 범죄 - 문화, 보건, 환경, 사회복지 - 교통, 관광 - 인구통계 기준 ○ 방법론 분야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경제통계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센서스 개발 - 사업체, 기업체 명부 정비 ○ 사회, 경제 관련 통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 - 기업, 서비스 - IT, 환경, 고용, 지적재산권, 센터, 지역통계 정비 - 정책평가에 통계활용 추진 - 통계조사의 계획적 재검토 - 대규모조사주기 조정 ○ 통계조사의 효율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방법 - 행정자료 활용 - 통계행정절차 간소화 - 각 부처 통계DB 공유화 ○ 통계인력 교육 ○ 자료 제공범위 확대 ○ 국제협력 증진

추진주체 및 일정 ○ 명시

○ 명시(참여인력 포함)

○ 명시

연도별 소요예산 ○ 명시

○ 명시

○ 명시하지 않음

- 자료: 1) 영국통계청(2002), National Statistics Work Programme.
 2) 호주통계청(2004), Forward Work Program 2004-05 to 2006-07.
 3) 일본 총무성(2003), 통계행정의 새로운 전개방향.

3. 시대구분에 따른 우리나라 중장기발전계획의 특징 비교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시대별 구분 비교를 위한 중장기발전보고서 중 1976년 장기발전 방안은 범부처적으로 협력하여 작성된 보고서가 아닌 민간 연구용역에 의해 작성된 연구보고서로 타보고서와 구체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지만, 전체적인 시대적 통계 작성 경향을 비교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통계작성 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인구와 경제에 관련된 내용에 국한되었으며, 통계기법에 있어 표본조사기법을 다양하게 적용할 계획을 담고 있다. 인구통계는 인구센서스통계와 인구동태통계에 국한되었으며, 경제통계는 주로 산업통계조사(광공업)에 집중되었다.

80년대 이후 국가통계는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 정부의 통계작성기능이 강화되어 국가통계조직으로서 조사통계국의 확대에 따라 경제사회발전계획 7차 계획(1992~96)의 통계부문에서 통계작성이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7차 경제사회발전계획의 목표를 정리하면, 기술 및 경영혁신을 통한 발전 잠재력 확충,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형평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중장기정책 제시, 급속도로 진전되어 가고 있는 국제화 추세와 조화되도록 시책을 발전시켜나가면서 국제경제에 있어 우리의 지위를 계속 향상 과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계부문에서도 통계의 균형적 발전도모, 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통계자료의 이용도 제고 및 국가통계 작성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어 발전계획을 수립 하였다.

추진과제는 1976년 16개 과제에서 1991년에 78개 과제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분야도 인구 및 경제 분야에서 보건, 복지, 사회 등 비경제분야로 확대되었다(표 2 참조). 실제 총 78건 과제에서 보건 및 사회보장과제가 26건으로 전체 과제수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1990년 들어 경제의 개방화,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되면서 우리나라 통계정보에 대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수요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동 보고서에는 통계작성기준 및 통계정보보급 등에 관한 과제도 포함 되었다.

3)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에 세무개선팀(통계청, 복지부, 국제청, 서울지, 한국은행 등 총 10명)과 기획홍팀(통계청)으로 구성된 국가통계인프라강화추진단을 2005. 3.31일에 발족하여 6개월 시한으로 국가통계중장기발전계획, 통계법 개정, 국가통계위원회 설립, 행정정보의 통계활용, 지역통계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아젠다를 수행하였다.

국가통계인프라강화추진단³⁾의 중장기발전계획보고서(2005)에서는 최근 들어 삶

의 질 향상과 다원화, 사회경제의 글로벌화, 산업구조의 고도화, 성장과 조화로운 복지정책 등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짐에 따라 현재의 통계를 확대시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통계수요자가 신속하게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의사결정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총 132건의 통계개선 및 개발과제를 선정하여 향후 5년간 추진토록 하였다.

<표 2> 우리나라의 시대별 중장기발전계획 추진 과제 비교

구분	중장기계획 (2006~10)	통계발전계획 (1992~96)	장기발전방안 (1976)
과제수	132	78	16
분야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개선·개발 - 국민계정, 경기, 기업경영(19건) - 노동, 임금(5건) - 보건, 사회복지, 여성(13건) - 농림수산, 광공업, 도소매 및 서비스(22건) - 에너지, 자원, 환경(6건) - 건설, 주택(5건) - 교육, 문화, 과학(14건) - 무역, 외환, 투자(4건) - 재정, 금융, 물가, 소득(13건) - 지역통계(10건) - 패널조사(4건) ○ 통계조사 관리방식 및 통계정보 전달체계(12건) ○ 분류체계(1건) ○ 국제협력(4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개선·개발 - 인구(2건) - 고용, 임금(8건) - 물가, 가계, 주택(4건) - 보건, 사회보장(26건) - 환경(7건) - 농림어업(9건) - 광공업, 에너지(8건) - 건설, 교통(6건) - 도소매, 서비스, 무역(2건) - 경기, 기업경영, 국민계정(3건) ○ 통계정보 보급과 활용 확대(1건) ○ 통계작성기능의 강화(1건) ○ 통계작성 조직체계의 강화(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통계의 개선 - 인구동태조사 - 인구센서스 - 주민등록인구통계와 상주인구조사 - 노동력인구통계 ○ 경제통계 개선 및 개발 - 신 국민계정 도입 - 사업체조사범위확장 - 제조업생산통계 - 건설업통계 - 유통재고통계 - 가계조사 - 농산물 수급계획 통계 - 수입원자재 재고 - 고용통계 ○ 표본조사기법 개선 - 행정보고조사의 표본조사로의 대체 - 표본조사기법 개선 ○ 자료처리기법 개선 - 전산업무 도입

추진주체 및 일정

소요예산 ○ 명시하지 않음

○ 명시

○ 명시

○ 명시하지 않음

○ 명시하지 않음

○ 명시하지 않음

자료 : 1) 국가통계인프라강화추진단(2005), 국가통계 중장기 발전계획(내부자료).
 2) 통계청(1991),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통계부문계획).
 3) 조사통계국(1976), 한국통계의 장기발전방안 연구(연구용역: 대한통계협회).

4. 시사점

국내·외의 중장기발전계획을 비교 검토한 결과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영국의 국가통계발전계획의 특징은 국가의 주요 현안(cross-cutting)과제와 주제(theme)별 과제를 구분하여 국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방향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였다. 또한 과제별로 추진 주체기관, 중장기 추진일정 및 연도별 소요예산을 책정하여 중장기발전계획을 구체화한 점이 두드러진다. 호주의 중장기발전계획도 영국과 거의 유사하며, 다만 과제참여인력이 명확히 설정되어 과제수행에 따른 중장기 재정수요와 연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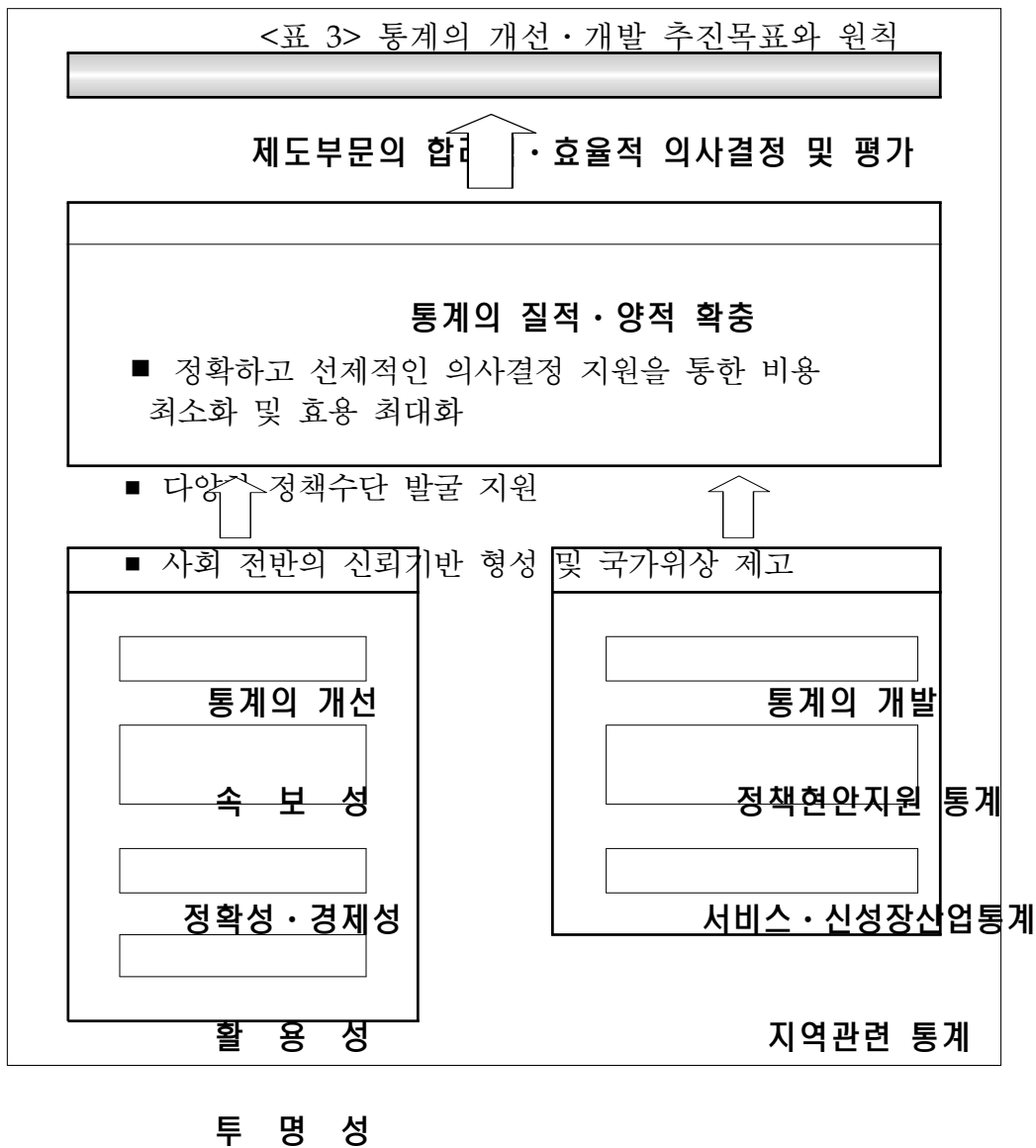
이에 반하여 일본의 중장기계획은 새로운 사회경제환경에 대비하여 수요가 예상된 분야에 대한 통계 개발과 기존 통계에 대한 정비계획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분야별·과제별 추진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며, 연도별 소요예산도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가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된 재정수요 파악이 어려워 체계적인 통계생산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내용면에서는 정책평가에 통계를 활용하여 국정과제의 평가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이 두드러진다.

우리나라의 국가통계발전계획을 70년대, 90년대, 2000년대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영국, 호주와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국가통계발전계획 수립이 국가 중앙통계기관을 중심으로 각 정부 부처가 오랫동안 각 부처의 계획을 토대로 협력하여 마련하였으나, 우리나라는 2005년 국가통계 중장기발전계획을 제외하고는 정부 연구용역에 의해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었다. 2005년 중장기발전계획은 각 부처가 우선적으로 부처의 자체 국가통계발전계획 수립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국가 전체의 통계발전계획이 수립된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에 중앙통계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T/F팀에 의해 수립되어 국가통계 중장기발전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못하였다. 또한 중장기발전계획에 추진인력과 연도별 소요예산이 없어 향후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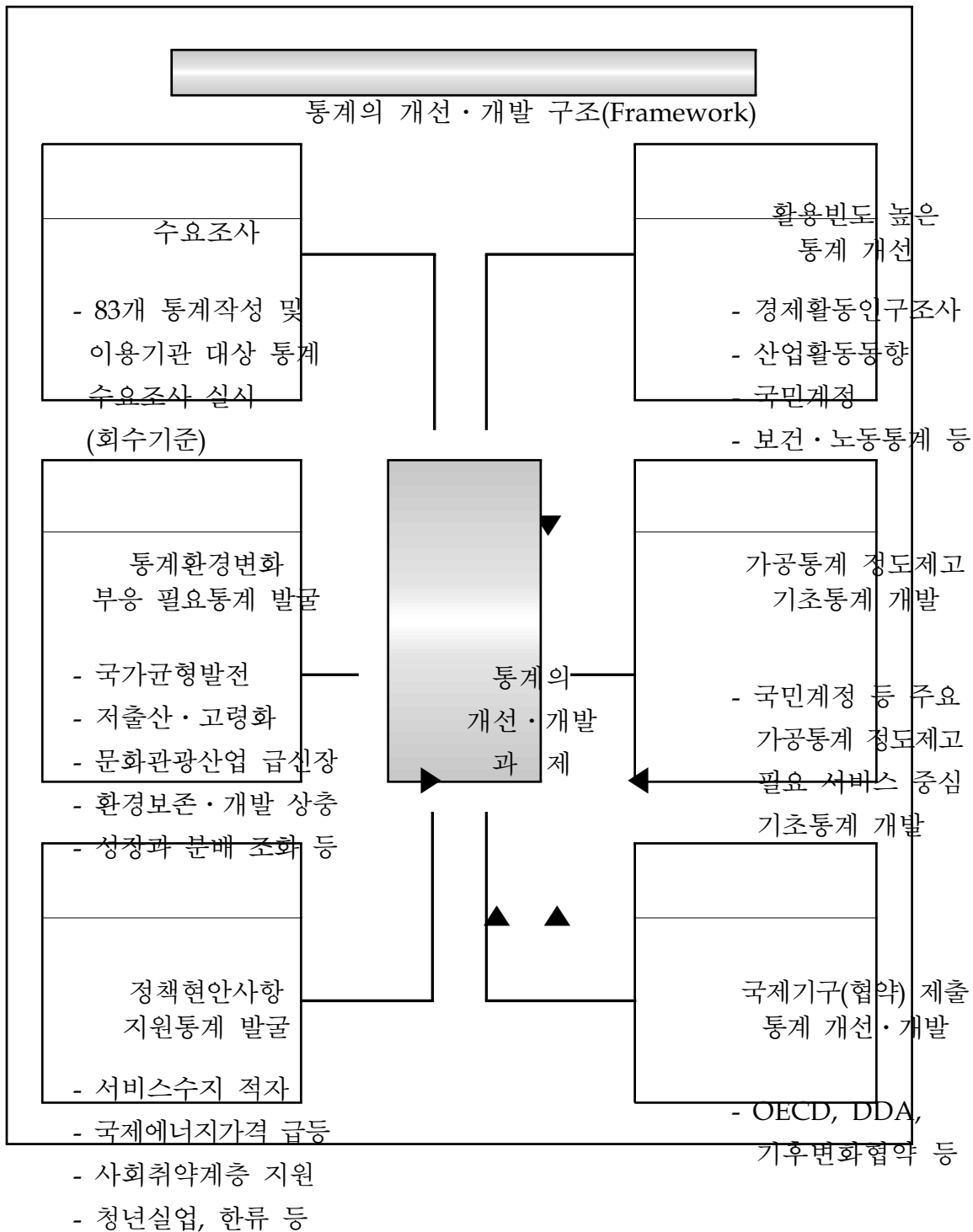
IV. 국가통계의 발전방향

통계는 제도부문의 의사결정 및 평가의 기반이 되는 공공재 성격의 인프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통계에 대한 인식부족과 투자소홀, 통계행정의 부실 등으로 통계 본래의 기능과 역할이 제한적이다. 최근 들어

삶의 질 향상과 가치관의 다원화, 사회·경제의 글로벌화, 산업구조의 고도화, 성장과 조화로운 복지정책 등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짐에 따라 현재의 통계 및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통계 중장기발전계획은 통계이용자가 신속하게 합리적·효율적으로 의사결정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통계를 개선·개발해야 할 것이다(표3 참조). 이러한 목표에 따라 수립된 국가통계 중장기발전계획의 Framework은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표 4> 국가통계 중장기발전계획 (2005)



자료 : 국가통계인프라강화 추진단(2005), 국가통계 중장기발전계획 보고서(내부자료).

이상에서 언급한 국가통계 중장기발전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발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제가 포함된 기관은 분야별 추진과제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 실천 방안을 기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2006년에 설립 예정인 '국가통계위원회'를 통하여 추진과제의 진행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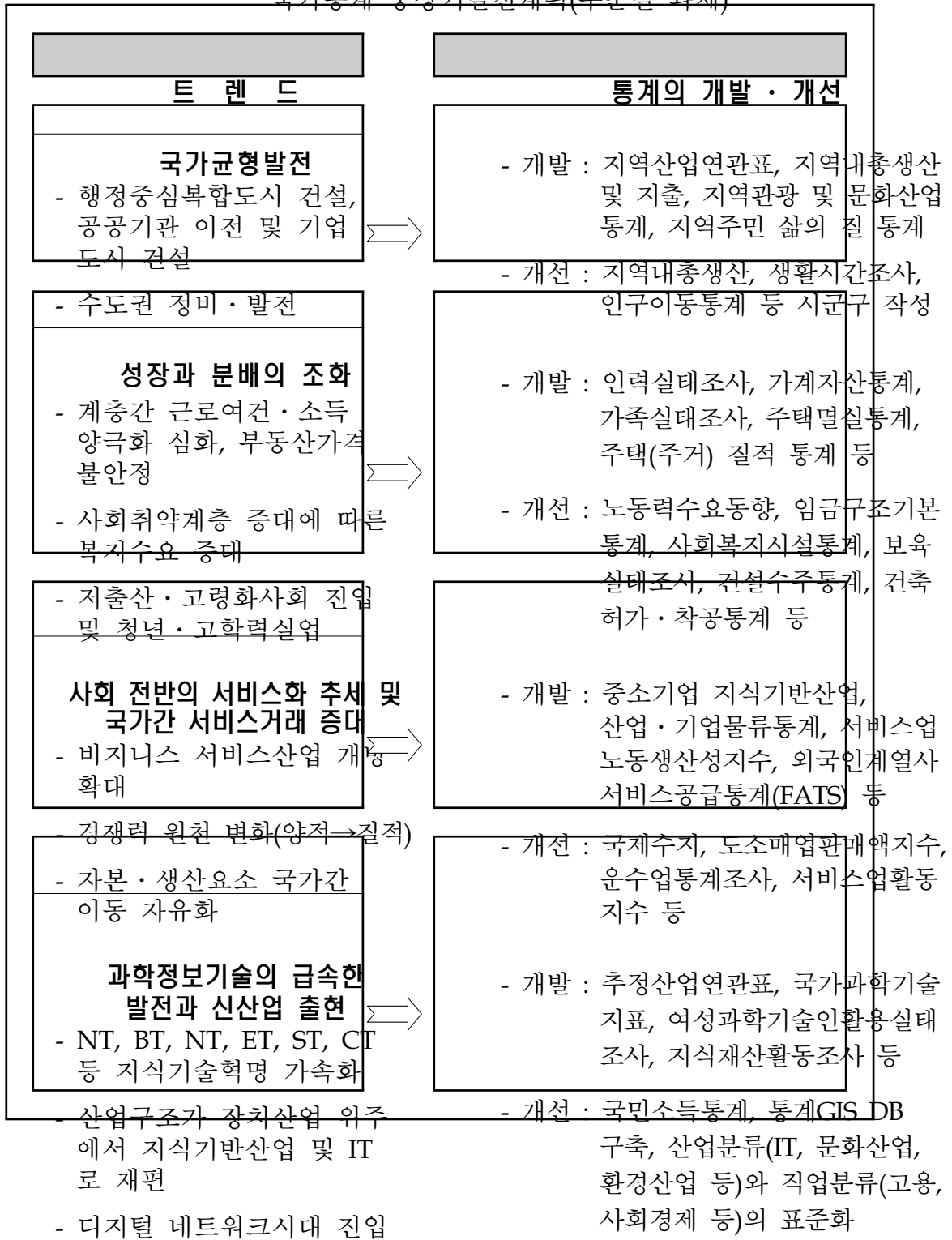
둘째, 통계는 단기간에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지속성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이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결정권자 및 통계생산기관의 통계에 대한 인식전환과 관심제고가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통계생산기관이 국가통계 중장기발전계획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통계의 개선·개발과제를 정부의 기관별 혁신평가요소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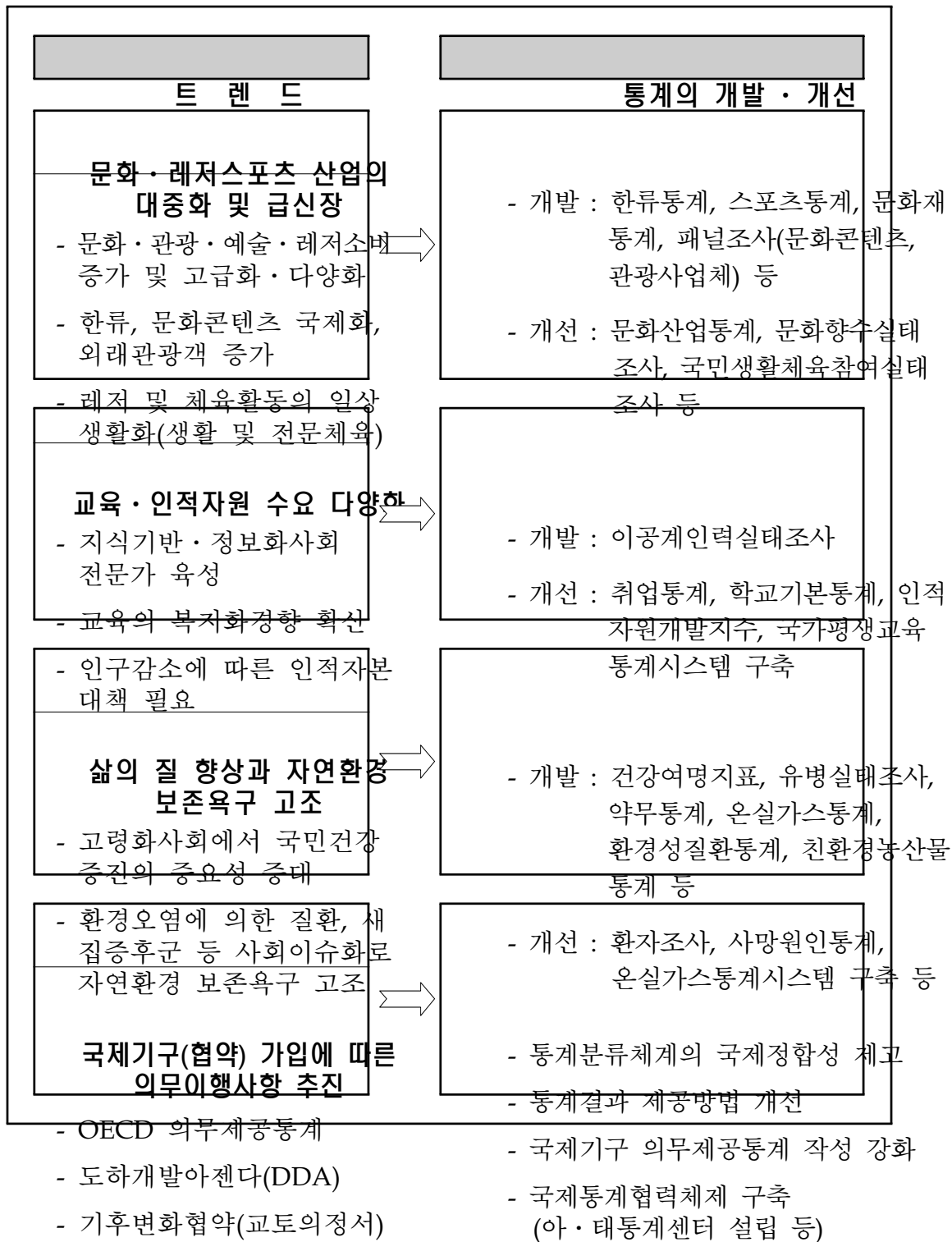
셋째, 일본의 경우처럼 정책평가에 통계를 활용하는 방안의 모색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국무조정실의 각 부처 성과측정항목에 통계지표 활용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부처과제를 평가할 수 있도록 중앙통계기관은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

넷째, 국가통계 중장기발전계획의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추진 과제에 소요되는 중장기 재정수요를 파악하여 부처별로 매년 적정수준의 소요예산을 책정하며,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의 요구예산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중앙통계기관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추가 소요예산 및 인력 등을 추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

<부록 >

국가통계 중장기발전계획(부문별 과제)





자료 : 국가통계인프라강화 추진단(2005), 국가통계 중장기발전계획 보고서(내부자료).

참고문헌

- [1] 국가통계인프라강화추진단(2005), 국가통계 중장기 발전계획(통계의 개선·개발부문) (내부자료).
- [2] 국가통계인프라강화추진단(2005), 통계수요조사결과 보고서.
- [3] 국무조정실(2005), 05 각 부처 성과측정계획.
- [4]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1976), 한국통계의 장기발전방안 연구(연구용역: 대한통계협회).
- [5] 김 민경(2001), 국가통계조사의 과거·현재·미래, 한국통계학회 논문집, 8권 기념호 pp. 39-45.
- [6] 나 성린, 전 영섭(2001), 공공경제학, 박영사.
- [7] 이재형(2004), 국가통계시스템 발전방안, KDI.
- [8] 통계청(1991),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통계부문계획).
- [9] ABS (2004), Forward Work Program 2004-05 to 2006-07.
- [10] Japan Statistics Bureau (2003), New Directions in the Development of Government Statistical Services.
- [11] National Statistical Coordination Board (2000), Philippine Statistical Development Program 1999-2004.
- [12] ONS (2002), National Statistics Work Programme.